

정책비전 보고회

문화 산업의 비전과 전망을 이끌어 갈 인적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힘을 집중할 할 것을 강조

오늘 귀한 보고를 준비하고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니 각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경제5단체 대표와 문화예술계에서도 물론 오실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각 지역에 단체장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예를 안 들어도 한국정책을 관리하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문광부 보고답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재미있게 꾸렸습니다. 내용도 유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문화산업이 경제적 비중 및 전망에 대해 너무 빠르게 지나가 사오정 오류도 세대는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훌륭한 인쇄물 있으니 천천히 보겠습니다. 전에 다른 보고회에서도 문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습니다. 그전에도 신성장동력산업 얘기하면서 NT BT 얘기하면서 CT가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실감이 덜 났습니다. 그때 금액들로 표현된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산업이고 시장이 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까지 무시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매년 정책보고 때마다 문화산업을 챙겼고 다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산업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산업을 개척하는 효과가 큼니다. 실제, 생산자나 소비자나 훨씬 즐겁고 창작의 성취감을 많이 느껴 그 사회의 사람들이 행복하

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공사례 같은 경우는 아주 감명 받았습니다. 그 쪽 성공이 정치적 성공보다 훨씬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서 주요 정책추진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 자본, 그리고 인프라 그 다음에 소프트 인프라로서 규제, 지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5대 강국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원하면 돈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지원도 있지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작은 모종에 비료를 듬뿍 주면 모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적절히 흡수할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IT산업 최고수준 자랑합니다. 최초성장기를 보면,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세운상가에서 기술서적, 영어책을 보며 조립품을 만들던 사람들이 개척한 것입니다. 사람이 IT산업을 시작하고 개척하고 그 토대가 있어 정부가 주목하고 지원했습니다. 그 토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세운상가에서 8비트 컴퓨터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계기가 있고 정부가 지원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양성에 가장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런 인력을 쉽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급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따로 각별히 준비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각 지역에 어디서든 벤처에서 소규모로 시작하므로 큰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영상산업진흥회에서 하고 있듯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조업 쪽에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는 제조업은 아무리 지원해도 고용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물건이 나오면 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업적 발전을 위한 지원은 창업자금이나 문화컨텐츠 산업시장이 생기도록 보증보험제도 등 가능성 실효성을 검토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시드머니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자금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영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래야 투자와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데 이런 인력을 키울 연구가 업계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참여하는 것도 이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합니다. 이점에 관해 정부가 협회라든지 또는 사업자들의 사이에서 서로 정부와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적극적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약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심의의 문제가 첫 번째인데, 오늘은 당장 심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단순히 말씀 드리기 힘듭니다.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가 있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 강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로 인해 공론이 생기고 국민들이 싫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영상물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적문란이라든지 이런 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국에 사회학자들이 심도 있게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야무야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문광부에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침해 행태와 복구하고자 하는 비용이 단속비용보다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한 침해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세한 소규모의 것은 정부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적인 침해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P2P 그게 무슨 사이트입니까. 소리바다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

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너무 많아 단호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대응해야 합니다. 남의 창작물은 작게 보여도 잘못하면 창작의욕을 끊으므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짚어서 말씀 드려서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봅시다. 대통령의 관심이 도움이 된다면 이 정도 도움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도전해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산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 업적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에 정책조정기구를 특별진흥위원회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광부가 청와대가 힘을 실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구를 두어서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필요한데 청와대가 왜 이렇게 크냐는 것이 지적이 있어 내가 덜렁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정책실 여러 분야에서 얘기해가면서 어쨌든 기구가 모자라 일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기대를 가지고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열린 길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